

## 大學風土와 學問



濟州大 總長 金 斗 熙

요즘에 와서 大學敎育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것은 오늘날의 大學이 이 時代와 社會가 요청하는 일에 제대로 副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狀況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첫째로 大學 運營이나 學生指導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끊임없는 간섭에 기인한다. 근래에 와서 학생 지도, 교육 활동, 기타 大學 運營에 있어서 大學의 自律 能力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大學은 몸살을 앓아 왔다. 둘째는 팽창하는 大學 人口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大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학생 수의 폭발과 그들의 多樣한 욕구를 대학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充足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民主化·自律化의 時代에 들어서서 敎育·研究·奉仕로 요약되는 大學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大學 機能의 再照明과 아울러 몇 가지 이루어 놓아야 할 課題가 있다.

첫째,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이들과 사무직원 사이에 서로 理解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時代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大學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쌓인 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존중함은 물론 이해의 공간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집단의 최고 단계인 人格共同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유한한 人格은 그 자신이 이미 個人 人格인 동시에 全體 人格의 成員이기도 하기 때문에 大學에서는 이 社會에서 볼 수 있는 成員의 독립적인 個人性과 생활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의 실재적 全體性이 동시에 인격적인 통일의 형태로 승화하여 대학의 독자적인 連帶의 原理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 공동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은 비판적인 思考精神이 널리 수용되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禁忌되는 傳統이나 제도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나 사상 또는 행동의 眞僞·優劣·是非·善惡을 판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허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學問은 비판 위에서 발전되는 것이므로 大學에서의 批判精神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판을 통하여 단순한 경험에 집착하거나 偏見이나 獨斷에 빠지지 않고 참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教授·學習 및 研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 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은 비판과 자기 반성이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構成員은 學問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風土 助成을 위해 共同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大學의 秩序는 民主的 精神 위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민주 제도는 자율에 기초한 것이며, 大學은 성격상 자율이 침해될 때 침해될 수밖에 없는 곳으므로 사회나 대학 모두가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大學 自治가 가능하도록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새로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自治 能力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 받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밖으로는 大學이 自治 能力이 있음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확신감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민주적 의사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學事行政을 비롯한 人事, 財政 등 大學의 最高 意思決定過程에 教授들의 意見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우려해 온 학연·지역·네포티즘(nepotism)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성실하고 창조적으로 研究하는 사람이 존경 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직무 동기를 갖게 할 것이며, 성원 각자가 당당히 자유 경쟁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건전한 정신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 大學은 새로운 出發을 위한 轉換期에 있다. 그런 전환은 大學 外部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大學 內部에서 더 많이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 運營의 철저한 재검토와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照明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大學을 그 본래의 기능인 研究·教授·奉仕하는 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 外部에서나 內部에서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